

편견
 인육이야말로 힘이 많으니, 악을 좋지 않는
 까닭에 물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으며,
 참는 사람은 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느니라.
 -사십이장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년
불교미술전시관
 사명: 불교의 아름다움
 체험: 승려의 삶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종사 활동대부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1월 22일 수요일(주간) 제 295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승가가 과연 현재와 같은 교육시스템으로 미래사회 밝은 비전을 제시하는 불교의 사회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같은 불자들의 의문제기는 근본적으로 교단에서 승려교육 및 육성, 자질향상에 얼마나 관심과 지원을 하는가에 대한 비판에 따른 것이다.
 승려교육은 교단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불교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 만큼 1962년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조계종은 교육 역량 포교의 3대 지표를 천명했

승려교육

행자 교육원-법계제도 짓고 고치고 숙제 많다

다. 하지만 이런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강조는 말뿐이었던 교육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8년, 99년 종단의 분규가 승가교육 부실화에 따른 폐해였음이 지적됐지만, 교육에 대한 종단의 관심과 의지는 아직도 미약한 실정이다.
 1994년 조계종 교육원이 들어서며 승가교육 체계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했지만 빈번한 종단예산 등의 뒷받침이 없어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님이 되는 자질을 갖추는 행자교육마저도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원에 행자교육도량 건립을 위한 준비위가 올해 구성돼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중앙승가대 캠프학사 이전, 총무원장사 건립 등의 종단 사안에 묻혀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교육 또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과목 등이 부실하고 승려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승가교육에 내실을 기해야 종단이 안정되고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한 도, 책임성이 이뤄질 때 승가위상은 자질로 확립된다. 또 종단에서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예비승려와 기존의 승려들이 마음놓고 정진과 수행을 할 수 있는 수련원과 연수원 행자교육원 등을 갖춰 승공진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원우 기자(wkim@buddhania.com)

사이버 세계의 정갈과 책방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국대원대불교서점 ONLINE 및 점
 Tel:(02) 737-0695 Fax:(02) 737-0696

청년불자층 '흔들린다'

중소도시 청년회 감소현상 뚜렷 대불련 매년 7~8개 지회 붕괴

청년불교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 불자연합회가 최근 5년간 급속한 회원 수 감소를 보이고 있어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불교가 와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을 주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실시한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시 불교청년회는 이미 붕괴했으며, 인구

또 대불련의 경우 지난 해 23개 지부, 171개 지회(학교단위 불교동아리)였던 것이 101개 지회로 감소했다. 매년 7~8개 지회와 2천여명의 회원이 줄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41개 불교 동아리 가운데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등 10여개 대학만이 월 1회 법회를 병행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은 부처님 오신날 법회와 성지순례 등의 정기행사만 개최하는 등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 대학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다. 대불련 임광대지의 김민주(가정교육과 2년)회장은 "학생들의

조계종 원로의원 응담스님 원적 간소한 산중 다비식

"죽음 알리지 말라"
 모아둔 보시금 7천만원
 생명나눔 등에 고루 나눠



"시주의 은혜를 입거나 신도와 신자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죽었을 때 사방에 알려 번거롭게 하지 말라. 산중에서 조용하게 화장하여 흩어버려라."
 14일 주석치인 수덕사 서당에서 원적에 든 응담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스님의 유언대로 부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중창 행렬이 줄을 이었다. 청동종경과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인사말, 상좌와 인사로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영결식은 10여분만에 끝났다. 영결식 후 응담스님의 법구는 산중의 다비장으로 옮겨져 곧바로 다비에 들어갔다.
 "요즘 절집의 다비가 너무 번거롭고 호화스러워 불조의 뜻을 저버리고 시주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니, 너희들이 내 상좌라면 내가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거듭 당부하니 소중히 하지 말라."
 법장스님과 문도 대표 수경스님은 "스님의 한평생 살림살이는 본분남자로서 매우 단순하고도 소박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런 안과 종단협 대표단 방북 초청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박 위원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응담스님은 입적 며칠 전 법장스님과 상좌 수경스님을 불러 조용하게 화장해 흩어버려라는 당부와 함께 봉투 하나를 내놓았다. "소중한 시주의 돈이니 중생을 위해 써라." 그 동안 모아두었던 보시금 7천만원이었다. 두 스님은 생명나눔살천회,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지리산살리기 범국민연대, 사랑살은 고통봉사대(어린이 심장병 치료 단체)에 기증하기로 했다.
 "덕산산 호랑이" 응담스님, 공부하지 않는 모습을 가장 싫어해 반종거라는 스님을 보면 반드시 호통을 쳤다. 시봉도 마다했다. 한번도 빠지지 않은 새벽예불을 위해 계단을 오를 때 앞에서 거들러하던 "형생 나를 도우려면 부끄럽다"는 말로 말했다. 공부하는 스승이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죽지 않는 법을 찾아 응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금오스님의 선맥을 이은 응담스님, 세수 87, 법랍 70세를 일기로 사바의 인연을 다하기까지 금강산 마하연, 오대산 상인사 등 재방선원에서 천지가 생기기 전에 본래 내 마음 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天地未生前 是心體)를 참구했던 참수행자였다. 80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으며, 제자로 지리산살리기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과 충남 개성사 주지 현성스님, 동국대 박산영 교수 등이 있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 의장 법진스님, 부의장 종산스님,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을 비롯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전 총회외장 설정스님, 불국사 주지 세민스님, 종화부의장 명진스님, 총회외원 장운 자승지용 항적 현각 범종 성관 현운스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대표 도법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응담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수덕사=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4개 종교 성직자들은 14일 '새만금 백지화'를 위한 종교인 2천인 생명·평화 선언식을 가졌다.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14일 종교인 2000인 생명·평화 선언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교의 성직자 200여명 등 500여명의 시민들은 14일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새만금 백지화'를 위한 종교인 2천인 생명·평화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선언식에는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 월드워치연구소 회장도 참석했다.
 종교인들은 선언문에서 "다른 생명체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고

"12월 베이징서 만나자"

종단협, 조불련에 제안
 종단협의(회장 정대)는 13일 사무총장 홍과스님 명의로 북한 의 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앞으로 팩스를 보내 12월중 베이징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종단협은 팩스에서 "베이징 집회를 통해 내년에도 연가된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추진 방안과 종단협 대표단 방북 초청 등을 논의하고 싶다"며 "박 위원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관절염 앓는 노스님이나 불우신도를 주위에서 추천해 주세요"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해에 이어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벌인다. 가천의대 동인원 김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어깨관절)에 대해 이수한 원장과 담당 전문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 6~8명 정도
 ◆지원 대상: 노스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자
 ◆지원 내용: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견상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구비 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략한 의료지원신청서(소장양식)
 ◆진료비 무료: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3,000원 인콰) 및 무통 주사비는 본인 부담.
 ◆접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전화 (02)722-4162
 주최: 현대불교신문사·동인원 김병원
 후원: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네)

충북불교문화회관 개관 1주년 기념

한·태 불교문화교류 대법회

1. 행사 개요

행사명 : 한·태 불교문화교류 대법회
 증명 : 남산 정일 큰스님(선학원 이사장)
 일시 : 2000년 12월 14일(목) - 19일(화) 5박 6일
 장소 : 태국 방콕(대리석 사원) 및 불교성지 일원
 대상 : 대법회 동참 희망 스님 및 불자 약 300명
 동참금 : 80만원(불상조성금 포함)
 주최 : 재단법인 선학원
 주관 : 충북불교문화회관
 후원 : 문화관광부, 충청북도, 청주 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월간 불광
 협찬 : (주) S.J. 여행, 성창보석, 성화불교

WAT BENCHMABOPITR(대리석사원)은 ?
 태국에서 왕이 아닌 대왕으로 불리는 몇 안 되는 왕 중의 하나인 풀라롱콘(라마 5세, 1868-1910 통치)이 1900년에 세운 사원으로써 세계 각 국(아시아)의 불상을 창건 당시부터 사원 내에 모시으로써 여러 나라의 불교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 또한 사원 내에는 강원도 스님들의 기거사가 있어 우리나라 스님들도 공부하신 분이 계심

2. 행사 의의

세계 각 국의 불상이 모여져 있어 불교 국가인 태국을 방문하는 세계 여러나라의 여행객들이 한번쯤은 꼭 들려보는 사원 중의 하나인 WAT BENCHMABOPITR(대리석사원)에 우리나라의 부처님을 모시므로써 우리 양식의 불상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음은 물론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태 불교계간의 지속적 문화 교류와 우호 증진으로 세계 속의 한국 불교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충북불교문화회관 TEL : 043)294-6193